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10> 문화역 서울 284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 기차 떠난 '문화 플랫폼' ... 100년의 시간 여행



지난 2011년 8월 구 서울역사를 복원해 문을 연 '문화역 서울 284'는 역사(驛舍)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전시회와 공연, 퍼포먼스로 문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역 서울 284)



1920년대 귀빈들의 이발실로 사용했던 공간(사진 위)은 복원 과정에서 나온 건축자재와 창틀, 관련사진 등을 전시하는 복원전시실(아래)로 변신했다.



지난 19일 구 서울역사의 대식당(그림)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선 세계적인 공연 연출가 트리스탄 샵스의 장소 특정적 공연 '감시'가 열렸다.

지난 19일 오후 '문화역 서울 284'(구 서울역)는 영상과 설치미술,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연극무대로 변신했다. 영국 극단 '드림싱크스피크'(Dreamthinkingspeak)의 예술감독 트리스탄 샵스(Tristan Sharps)가 연출한 장소 특정적 공연(Site-specific Theatre) '이였다. 관객들은 객석에서 편안하게 앉아 공연을 즐기는 대신 30여명의 배우들과 함께 건물 내부를 옮겨 다니는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감시'(Surveillance)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관객들은 '보는 주체'인 동시에 '감시 당하는 객체'의 이중적 상태에서 진정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장소 특정적 공연은 공간의 장소성을 모티브로 한 실험예술공연이다. 예술가와 관객이 고정된 무대와 객석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설정해놓은' 연극적 공간에서 관객들도 작품의 일부로 참여하며 공연을 완성한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언젠가'(One Day, Maybe)가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장소 특정적 공연의 세계적인 거장 트리스탄 샵스가 문화역 서울 284를 찾은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내부 공간들은 그 자체 만으로도 예술적 영감을 준다는 것이다. 문화역 서울의 장소성과 매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화역서울 284는 지난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새 서울역사 준공으로 한동안 방치됐던 구 서울역사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역의 역사적, 공간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의 문화허브이자 한류의 플랫폼으로 가꾸기 위해서다.

구 서울역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25년 9월 '경성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일본의 국채회사인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위탁 경영한 서울역은 198만엔의 건축비를 들여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건물로 설계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지붕의 돔과 독특한 외관은 당시 장안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설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다가 최근 일본 건축가 쓰카모토 야스시라는 이름이 적힌 당시 도면이 나오면서 야스시가 설계자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역은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과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 박물관'이다. 일제에 의

해 건설된 민족 수난의 상징이자 1950년대 한국전쟁, 1970년대 산업화 등 질곡의 역사를 함께 해온 서울의 관문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설과 함께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역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0년대 마이카 시대의 도래로 철도의 위상이 약화되고 2004년 KTX 개통으로 바로 인근에 신역사가 문을 열면서 서울역은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버려진 빈 건물엔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 모여들면서 용도 폐기된 역사는 해가 갈수록 황폐해졌다. 2007년부터 문화재로서 가치복원과 문화공간화 프로젝트 등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

2층으로 올라가면 대식당(그림)이 나온다. 스파게티와 스테이크 등 서양음식을 맛볼 수 있는 양식당으로 인기를 누린 곳이다. 대식당에 딸려 있던 유료변소와 이발실은 현재 복원과정에서 나온 건축자재와 창틀, 관련 사진, 복원과정을 담은 동영상 상영하는 복원전시실로 모습을 바꿨다. 1920년대의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건축 전문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지난 2011년 개관 이후 문화역 서울은 역사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시회와 퍼포먼스, 공연으로 문화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개관전인 '오래된 미래'는 낡고 오래된 것에서 창조적 미래의 동력을 찾는 가치의 재발견을 조명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시즌프로그램인 '아트 플랫폼2-박제된 공간을 깨우다'와 '여가의 기술-언젠가 그곳'에 '역사 문화역 서울의 색깔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사무실공간을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 RTO(Railroad Transportation Office)는 마감되지 않은 벽, 노출된 파이프 등 독특한 분위기가 덕분에 인디밴드, 모던 록, 실험음악을 연주하는 아티스트들의 아지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옛 서울역 역사·공간적 잠재력 극대화 위해 1925년 준공때 모습으로 복원 복합문화공간 전시·공연·퍼포먼스... 외국 아티스트도 반해

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는 1925년 준공 당시의 모습을 복원의 기준으로 삼고, 내용적으로는 지난 80여년의 우리 삶의 기억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적 284로 지정된 후 3년여 공사 끝에 2011년 지상 2층, 지하 1층의 원형이 복원된 '문화역 서울 284'로 지난 2011년 8월 문을 열었다. 새로 부여된 독특한 이름에는 목적(문화), 지역(서울), 가치(사적번호 '284')가 모두 담겼다.

서울역사를 둘러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1층 중앙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3등 대합실, 왼쪽은 1·2등 대합실과 귀빈 대합실, 부인대합실 등으로 나뉜다. 1층은 천장이 높고 채광을 고려해 창문도 길게 뚫려 있고 12개의 돌기둥이 그리스 신전처럼 세워져 있다. 3등 대합실은 남녀가 함께 이용했지만 1·2등 승객은 부부라도 남녀를 구별해 여자는 부인대합실에 머물러야 했다.

조선총독이 사용한 귀빈대합실은 건물에서 유일한 난방시설인 신식 라디에이터, 상들리에와 거울 등 인테리어에 신경 쓴 흔적들이 뚜렷하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때도 1·2등 승객과 3등 승객이 이용하는 계단이 달랐다. 플랫폼으로 나가는 길 벽에는 총알에 구멍이 뚫린 모습 등 6·25전쟁 당시 교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문화역 서울에서 만난 이정애씨는 "서울역사에 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가는 느낌이 든다"며 "근대 역사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흥미롭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역 서울은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위탁을 맡아 매년 25억원의 예산으로 전시, 공연, 강연, 연구, 예술교육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과 대관의 비율이 6대 4 정도다. 지난 한해만 17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서울 시민은 물론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문화역 서울의 홍보담당 김윤애씨는 "서울역사들은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됐을 뿐 아니라 돔 창문과 지붕은 원형 그대로 복원됐다"며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일반적인 전시장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아우라를 자아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트라이슈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